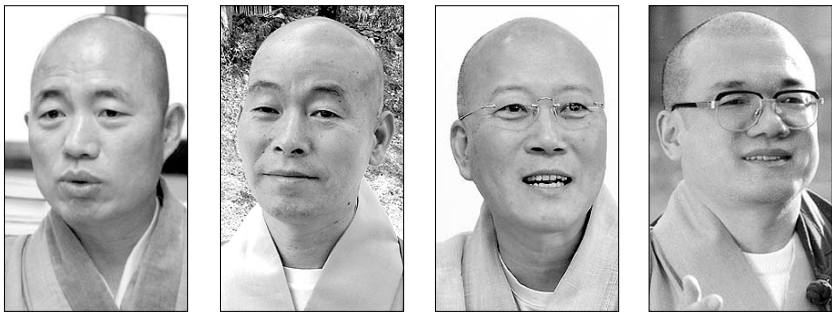


보성 스님, 법흥 스님, 통광 스님, 현묵 스님



성관 스님, 지현 스님, 수불 스님, 자광 스님

“반야 지혜 체득하길”

순천 송광사 금강산림대법회, 12월 2일부터 8차례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영조는 사자루에서 12월 2일부터 2006년 1월 19일 까지 49일간 오전 11시 경내 사자루에서 ‘금강산림대법회’를 봉행한다.

생활 속의 수행을 강조하며 공부하는 재가불자가 되도록 송광사는, 동안거 정진 중에 대중법회를 마련해 수행하고 공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법회를 마련한 것. 송광사가 안거정진 기간중 대중법회를 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금강산림대법회는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12월 2일)의 입제 법문에 이어 수불(안국선원장, 8일), 법흥(송광사 회주, 15일), 현묵(송광사 유나, 23일), 성관(수원포교당 주지, 29일), 지현(부산 관음사 주지, 2006년 1

월 5일), 지광(능인선원장 12일), 통광(침불사 주지, 19일) 스님이 <금강경>을 주제로 법문한다.

송광사는 산림법회 기간동안 <금강경> 강의와 함께 매일 영가천도 기도를 봉행하며 유주무주 선방부도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생활에 얽매어 동안거 정진에 동참하지 못한 재가불자들에게 공부하는 인연을 맺어주기 위해 이번 법회를 마련했다”며 “제방의 큰스님들이 설하는 금강경 강독을 통해 신심을 돈독히 하고 반야 지혜를 체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061)755-0108

이준엽 기자



지금, 우리 곁에서...

가평 백련사

가족 중심의 신행 도량



백련사는 체계적인 신도교육과 지역불교 참여를 통해 가평불교의 중심축으로 성장했다. 주지 승원 스님(앞줄 가운데)과 백련사 불교대학 3기생들이 졸업식후 찍은 모습

자나부나 거대한 숲을 이뤄 자갈로 불리는 가평군 상면 죽령산 자락. 속세의 때가 묻지 않은 이곳에 자리 잡은 백련사(주지 승원)는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함을 주는 탁 트인 경관과 침엽수림이 한껏 내뿜는 특유의 내음을 품었다. 청정도량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을만하다.

창건 8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백련사는 가평불교를 이끌어가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불교대학과 경전 강좌 등 체계적인 신도교육을

나리 재가불자와 수행을 원하는 가족 단위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는 점이다. 또한 스님들의 경우 3개월 안거가 아닌 일주일 또는 보름 안거로 운영된다. 사찰 운영이나 포교 활동 등으로 인해 시간이 부족해 안거에 들 수 없는 스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백련사는 가족 중심의 신행이 이뤄지고 가족이 함께 찾을 수 있는 사찰을 지향한다. 이를 염두에 둔 주지 스님의 배려가 도량 곳곳에서 배어난다.

경전 강좌, 군 법회 지원 등 지역활동에 적극적 일반인 사용토록 선방, 부도전 등 불사 계획

통해 빠르게 기반을 다졌고, 인근 군 부대 법회 지원 등 지역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역 사찰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백련사는 이 같은 자연조건을 살린 수행·기도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대웅전 뒤편, 도량 앞쪽으로 각각 지어질 선방과 생활관이 그곳. 대지 8000평 가운데 2000평에 지어질 선방과 생활관은 이미 산지전용 허가를 내놓은 상태로, 이르면 내년부터 건립불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선방은 여는 사찰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운영방식을 취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스님뿐만 아

가족 전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부도전이 대표적이다.

1기당 1가족을 봉안하는 가족부도전은 가족 대대로 사용할 수 있고, 20~30명을 한 부도에 안치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백련사에서 수계를 받거나 백련사를 원할로 삼은 불자들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가족납골을 절에 봉안함으로써 불자로서의 정체성을 세울 수 있고, 후손들도 절에 다닐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이 주지 승원 스님의 생각이다.

이 외에도 승원 스님은 가평군 사찰 연합회 결성과 서울 도심 포교당 건립 등을 계획하고 있다. (031)585-3855

박봉영 기자

부처님 법음 이웃과 함께 나눠요

서울 석가사, 12월 10일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영산재, 도예展 등 행사 다채

지역 주민을 위한 나눔의 음악회가 열린다.

단양 광덕사선원의 서울 포교당인 석가사(주지 일각)와 불교방송(사장 이성인)은 12월 10일 오후 6시 서울 녹번동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더불어 사는, 밝은 세상을 위한 송년대음악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날 음악회는 불은(佛恩)을 이웃에게 회향한다는 취지로 열려 의미를 더한다.

법고로 막을 올리는 음악회는 광덕사선원 조실 무허 스님의 송년법어, 데이비드테일러 주한 뉴질랜드 대사의 축사, 등에 이어

이상벽 씨의 사회로 본격적인 음악의 향연을 선보인다. 인기 가수 장윤정, 김종환을 비롯해 난타, L.M.B.싱어즈, 소프라노 김원정 씨 등이 초청됐다. 또 영산재 기능보유자 구해 스님의 천수바라 재현, 도신 스님의 천불가 공연 등 불교문화를 알리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공연장 밖에서는 도예가 하경혜 작품초대전 ‘흙사람’ 전시회가 열려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날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석가사와 단양 광덕사선원, 불교방송 등에서 배부하는 무료입장권을 소지해야 한다. (02)354-1141

박봉영 기자

법당 및 불교대학 개교식 봉행 명상상담아카데미 광주전남지구



명상상담 아카데미 광주전남지구(지도법사 인경)는 지난 11월 18일 광주 백운동 목우선원에서 법당개원 및 불교대학 개교식을 봉행했다(사진).

불교대학 첫 강의에 앞서 개원식에서 지도법사 인경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은 훌륭한 심리치료사이며 가르침은 심리학의 정수이다”며 “갑수목 정신이 황폐해지는 현대인에게 불교명상 상담은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갈래수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 명상상담 아카데미는 명상전문수련과정과 불교대학, 명상요가 등의 강좌를 개설했고 50여명이 등록했다. 이준엽 기자

광주 양림사 청동불상 도난

신라 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 불상이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월 18일, 광주 양림사 주지 덕수 스님은 “이날 새벽, 법당에 모셔진 불상이 사라져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 불상은 지난달 조계종 문화재 발굴조사단 실측조사에서 “높이 50cm, 청동으로 제작되었으며 보기 드물게 상품상생 수인을 하고 있어 문화재 가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준엽 기자

서산 마애삼존불 보호각 철거된다

내년 6월까지 안전진단 거쳐 보존대책 수립

서산 마애삼존불(국보 제84호)이 41년 만에 햇빛을 볼 수 있게 됐다.

서산시는 문화재청에 요청한 마애삼존불 보호각 개방과 진입로 보수 등 국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마애삼존불 보호각 철거 등 주변정비에 나선다고 11월 22일 밝혔다.

1965년 풍화와 훼손을 막기 위해 설치됐던 보호각은 최근 문화재연구소 조사결과

과 내부와 외부 운도와 습도차를 유발하고 통풍을 막아 마애삼존불의 변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적지 않았다.

시는 올해 안으로 지붕과 기둥만 남기고 보호각 벽면을 모두 해체할 방침이며, 마애삼존불 진입로 정비와 함께 내년 6월까지 안전진단을 끝내고 보존관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현명우 기자

현명우 기자

대승불교 최고의 수행체계

觀 중심의 형성과 여덟 진로의 수행체계

한 경계에 집착하면 그 죄가 수미산 같고, 한 경계를 버리면 사비지옥에 떨어진다. 이럴때 때 한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한 경계를 절실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만이 깨어 있을 수 있으며, 그래서 나와 경계가 하나가 되는 경지를 맞출 수 있다. 수행자라면 한 경계를 통해 여덟 진로의 수행으로 나아가 줄 알아야 한다.

여덟 가지 진로의 수행은 서로 맞물려 있어서 어느 하나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수레바퀴에 비유된다. 바퀴의 살이 하나만 빠져도 바퀴 전체가 찌그러지듯이, 여덟 가지 진로의 수행은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해서 안 된다.

구선 지음 / 312쪽 / 값 18,000원

이 책에서 제시하는 여덟 진로의 수행체계는 필자가 직접 수행해 온 경험이며, 또한 팔 년 동안 후인들을 지도하면서 얻어진 결과들이다. 때문에 누구라도 닦아서 체득할 수 있는 법들이다. 수행자가 비록 자성의 공(空)함을 인식했다더라도 이처럼 여덟 가지 진로로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를 제도하는 것과 주변 경계와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 여덟 가지 일로서 원만해지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깨달음만을 추구하고 그 이외의 실들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서 따가운 질책을 가한다. 특히 수행한다는 명목을 내세워서 또 다른 존재와 원만하게 어울리지 못하고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한다. 한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한 경계를 절실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만이 깨어 있을 수 있으며 경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경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를 맞출 수 있다고 말한다. 목전에 처해진 한 경계를 그냥 도외시 하지 말고 그를 통해 여덟 진로로 자기를 발전시켜 갈 것을 주장한다.

도서출판 현화 TEL 02)302-8145, 054)682-7770 / FAX 054)682-8155 http://www.kwan.or.kr

태평이가 전하는 태평농 이야기

‘때가 되어 갈 줄 아는 것이 깨달이고, 때가 되어도 가지 않으려는 것이 사람이다. 때를 모르는 것은 인간뿐,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은 순응할 줄 안다.’

이 책은 농사를 통해 자연과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경성도 외딴 곳 별학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이 시대 최고의 태평꾼 이영문이 전하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만나본다.

태평농법!! 이것은 단순히 농사짓는 방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과 자연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영문 지음 / 368쪽 / 값 10,000원

그는 이미 태평농법을 삶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흙이 살아야 사람이 산다’ 라고 주장한다. 적게 먹는 즐거움도 이야기하고 있다. 자연과 삶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사람과 자연, 아니 자연 속에 있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가 어찌 농사짓는 법으로 만족할 사람인가? 그에게 모든 것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기에 외부로부터 단절당한 삶이라는 문화권에서 새로운 문명을 열어 가려고 하는 것이다.

- 최진룡(국립경상대학교 농대 교수)